

# ‘공익제보자’ 신원 노출 막는다

### 광주 남구,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안심 변호사·노무사 통해 접수

광주시 남구가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자, 공익제보자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원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그동안 신고로 인한 보복이나 인사 불이익, 위협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던 공직자들과 부패행위를 목격하고도 목살되거나 도리어 공격받을 것을 고려해 망설였던 공익제보자들의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3일 “직장 내 갑질 및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구청이 변호사와 노무사를 선임, 이들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는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리신고제도’는 직장 내 갑질과 부당행위 그리고 공익제보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비위행위자가 직장 상사 또는 선배인 경우가 많아 신고자가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제보할 경우, 신원 노출

가능성과 심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남구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로 인한 직장 내 구성원간 관계 악화와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오는 18일 광주변호사협회와 공인노무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와 노무사 각 1인을 ‘안심 변호사’, ‘안심 노무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갑질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들은 구청에서 위촉한 안심 변호사와 안심 노무사의 개인 이메일을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해 공익 제보에 대한 부담감 해소와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다.

안심 변호사·노무사는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직접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자신들 명

의로 구청 담당부서에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회신받는 구조로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남구청 공직 내부에서도 비대면 대리신고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직원들 대다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에 따라 갑질 및 부당행위가 근절되고, 공익 제보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 강화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공직사회에서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존중과 청렴한 조직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화순탄광 내년말 폐광한다

### 대한석탄공사 노조 잠정 합의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화순탄광을 비롯한 공사 산하 3개 탄광의 단계적인 조기 폐광에 잠정 동의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석탄공사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열린 노사정협의체 회의에서 2023년 말 화순광업소, 2024년 말 태백장성광업소, 2025년 말 삼척 도계광업소 등 단계별 조기 폐광에 잠정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조기 폐광에 따라 법에서 정한 폐광대책비 외에 특별위로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용을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취업설명회를 3일 오전 지회별로 개최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잠정 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는 오는 5월 20일까지 하기로 했다”며 “조합원들도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의 폐광 대책에 반발해 지난 2월 10일 총파업을 결의한 노조는 지난달 28일에는 임금 농성까지 예고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호남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사업 선정

호남대학교가 광주시 및 광주교육청과 공동으로 제출한 교육부 공모사업인 직업계고-지역 협업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지원체계이다.

호남대가 선정된 전략산업분야는 지역 특화산업인 ‘미래형운송기기 산업분야’로 산업체와 협력해 직업계고 학생의 다양한 경력·경로 모형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인재들의 성장 경로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핵심분야 관련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지원, 선취업 후학습, 일·학습 병행 계약학과 운영,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개설해 학점 이수 후 약정된 산업체에 취업하는 방안 등이다. /채희종 기자 chae@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출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오월 3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지난해 1월 5·18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민의 염원이던 공법단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내용으로 1년 가까이 3개 단체가 완벽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지난 2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전환됐다.

기존 (사)5·18부상자회는 해산하고 새로운 회원을 입회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상자회 회원자격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

을 받은 사람 등이다.

공법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다. 기존 14개 보훈단체(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가 있다.

‘5·18민주화운동유족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는 내부갈등으로 아직 공법단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총장-신입생 특 콘서트  
조선이공대학교는 조순계 총장이 3일 대학 사회복지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올해로 4년째 '특(talk) 콘서트'를 진행했다. 조 총장은 '놀라운 조이공, Sweat for Dream! 절박함으로 실행하라'는 주제로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에 관한 특강을 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고3 학습·진학지도 집중지원 방안 마련

### 광주교육청

광주교육청이 2022학년도 새학기 고3 학생들을 위한 학습·진학지도 집중지원 계획을 지역 내 전체 고교에 안내했다.

이번 집중지원 계획은 2020년 3월 고교 입학 당시부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학습·진학지도 투입시간이 부족했던 고3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새학기 교육력 회복과 2023학년도 대입제도 변화, 수시·정시 비율 조정에 따른 진학지도를 지원한다. 고3 담당 교사들의 새학기

진학지도 연수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교 현장 교육의 신뢰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학기 고3 학생들을 위한 학습·진학지도 집중 지원 방안은 ▲고3 학생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 ▲고3 맞춤형 방과후학습을 통해 누락된 학습 결손 해소와 변화된 대입 준비를 위한 보충학습 지원 ▲3월 고3 학생(학부모) 진학상담 집중기간 운영 ▲진학상담프로그램(빛고을 진학 올리고) 보급·담임교사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운영 ▲대입전문가 초청 대학별 지원전략·입시설명회 매일 진행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 조선대 '해외취업 연수과정' 2년 연속 선정

### 광주·전남 유일

조선대학교가 고용노동부의 'K-Move스쿨 연수과정'에 2년 연속 광주·전남지역 유일 우수 과정으로 선정돼 지역의 '해외취업 거점대학'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해외취업 핵심사업인 K-Move스쿨은 외국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 및 직무교육을 제공해 해외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조선대학교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기존 운영예산의 10% 증액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K-Move스쿨 연수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선발된 학생들은 어학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해 해외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직무에 기반을 둔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받는다.

특히 2022년 K-Move스쿨 연수원원은 전년 대비 2배인 6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LA 상공회의소, 현지 취업체 등과의 직접 교류협약을 통해 200곳 이상의 해외기업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윤오남 취업학생처장은 “앞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경험을 통해 국내 취업으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